


소망과 의로의 찬송과 말씀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살전4:13)

목 차



〈소망과 위로의 찬송〉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289장)	2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290장)	2
구주 예수 의지함이(340장)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434장)	3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364장)	3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291장)	4
내 영혼이 은총 입어(495장)	4
천국에서 만나보자(293장)	4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469장)	5
내 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5
마귀들과 싸울지라(388장)	6
만세 반석 열리니(188장)	6
예수 사랑하심은(411장)	7
이 몸의 소망 무엔가(539장)	7
저 높은 곳을 향하여(543장)	7
지금까지 지내온 것(460장)	8
하늘 가는 밝은 길이(545장)	8
후일에 생명 그칠 때(295장)	8

〈소망과 위로의 말씀〉

시편 23편	9
요한복음 11장 21-44절	9
고린도전서 15장 35-54절	10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5장 1-9절	11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12
요한계시록 22장 12-21절	12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3
----------------------	----

소망과 위로의 찬송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289장)

1.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2.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써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3. 앞서 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 (후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290장)

1.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3.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340장)

1.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 (후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3.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43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364장)

1.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 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291장)

1.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2.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3.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롭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4.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 (후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가 만나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495장)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293장)

1. 천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2.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3.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후렴) 만나 보자 만나 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 보자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469장)

1.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384장)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388장)

1.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2.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3.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후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세 반석 열리니(188장)

1.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쉬임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 빈 손 들고 앞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4. 살아생전 숨 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 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411장)

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539장)

1.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민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앞에 서리라
(후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543장)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 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460장)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 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545장)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 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도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후일에 생명 그칠 때(295장)

1.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2.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녕히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3.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 (후렴) 내 주 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시편 23편

1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
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한복음 11장 21-44절

21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
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

서, 하매 ³⁵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³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³⁹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⁴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⁴¹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²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⁴³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⁴⁴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54절

³⁵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³⁶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³⁷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³⁸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³⁹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⁴⁰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⁴¹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⁴²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키지며 ⁴³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키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키지며 ⁴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⁴⁵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⁴⁶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⁴⁷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⁴⁸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⁴⁹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⁵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⁵¹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⁵²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⁵³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⁵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5장 1-9절

¹⁷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¹⁸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¹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²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³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⁵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시니라. ⁶ 그러므로 우리

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⁷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⁸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⁹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¹³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¹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¹⁵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¹⁶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¹⁷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¹⁸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2-21절

¹²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¹³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이라. ...¹⁶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²⁰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²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혈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혈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십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땀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작품인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봅시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아닙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쉴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에 몰두하고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 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마태복음 11장 28-30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eepBible.com | www.cbck.org | www.KACR.or.kr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한복음 11장 25-26절)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54절)

